

##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교환유학 생활

경북대학교

신지민

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유학생으로서 있었던 신지민이라고 합니다. 교환유학을 준비할 때부터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꼭 유학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는데 벌써 교환유학이 끝날 때라니 믿기지 않습니다. 꿈에 그리던 교환유학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 새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.

먼저, 기숙사 생활입니다. 처음 오차대에 들어와서 기숙사를 보았을 때, 앞으로 한 학기동안 살 집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. 자취도, 기숙사 생활도 모두 처음이었기에 두려움도 있었으나 첫 입주부터 반갑게 맞이해주신 기숙사 관리인분들 덕분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, 기숙사 내에 좋은 시설들이 많아서 기숙사생들과 키친룸에서 다 같이 타코야끼를 만든다든지, 스터디룸에서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등 즐거운 경험들도 많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. 이 경험들을 다음에 오실 유학생 분들에게 공유하고 기숙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일본어연습 2A 수업을 통해 기숙사 관련 웹사이트도 제작하였습니다. 한국에 돌아가서도 오차대에서의 기숙사 생활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.

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수업입니다. 저는 전공 학점을 다 채우기도 했고, 일본어 기초적인 실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생각하여 유학생 특별 과목으로만 수강하였습니다. 문법, 한자, JLPT N1 대비 수업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. 또, 일본사정연습 2A, 3A 수업을 통해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함께 한 유학생들의 다양한 국가의 문화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앞서 설명했던 일본어연습 2A 수업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를 직접 일본어로 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본인

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일본사정연습 4A 는 '차별과 공생'이 주제인 강의로 외국인으로서 유학을 온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교류하니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일본어 실력과 더불어 새로운 식견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

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교환유학이 아니었다면 가지 못했을 여행도 자주 가며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체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교환유학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기와라 선생님, 오우 선생님, 사사키 선생님 유익하고 즐거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적응을 도와주신 지도 교관 난바 선생님과 여러모로 저를 신경 써준 튜터 아이미상, 오차대에서 만나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준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

<기숙사 내 키친룸에서 타코야끼를 만드는 사진>



<도쿄 근교 가와구치코 여행 사진>